

회원님들의 최근 활동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환경부

10월부터 '페트병 수돗물' 판매



환경부는 노후 수도관 개량지원, 노후단지에 공동 급수시설 설치,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약수터 관리강화 등 시민들을 위한 수돗물 문제 해결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층 및 소규모 주택(85㎡ 이하) 거주자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먹는 샘물보다 저렴한 병입(페트병) 수돗물 판매를 허용한다. 병입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페트병 등에 담아 판매하는 것으로 관광과 옥내급수관을 거치지 않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 환경부는 "수익금을 노후 급수관 개량사업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어 수도꼭지 수돗물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안전한 수돗물 공급소 '정수장'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정수장의 절반가량은 우수정수장이며, 미흡한 정수

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정수장 운영과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전국 527개소의 정수장 중 약 1/3인 176개소의 정수장을 평가, 그 결과를 지난 4월 15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실태평가 결과 90점 이상의 우수정수장이 86개소인 49%, 80~89점 미만인 양호정수장이 72개소인 41%, 60~79점인 보통정수장이 18개소로 10%이고, 60점 미만인 미흡정수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수정수장으로 선정된 5개 정수장(대성, 백은, 양서, 연지, 마산)에는 각각 4,000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인증패가 수여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한국수자원공사는 선진 수도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3

월부터 사천읍 상수도관의 블록화를 추진했다. 이는 사천시 전체 수돗물 사용량의 22%를 차지하는 사천읍 지역의 상수도관망을 총 6개의 블록으로 분리, 독립적인 수질·수량·수압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수공은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누수방지로 수돗물 생산원이 절감 가능하고 수질사고 발생 시 단수구역 최소화 및 신속한 대응 조치가 가능케 할 계획이다. 사천수도서비스센터의 한 관계자는 "6월 준공예정인 본 공사에는 총 7억 8,000만원을 투입해 공사 시행 시 실시간 단수홍보 서비스(Xrshot) 실시 등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2008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개최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한 '2008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가 전국 지자체 물 담당

공무원, 학계·연구소·기업체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12일 강원랜드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김두환 수도정책과장 대독)의 축사에 이어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격려사와 유창식 정선군수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김두환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이 '먹는물 정책방향'에 대해 정책특강을 했다. 특히 이날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가 발표한 '한반도 대운하와 환경'이라는 특별강연 시간에는 대연회장의 자리 600여 석이 가득 차기도 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상수원 '물환경 개선 중기계획' 마련

한강유역환경청이 수도권 상수원인 경안천과 팔당



댐 유역에 대한 '경안천·팔당댐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마련했다.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부에서 수립한 물환경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본류에서 지천까지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하천을 목표로 2012년까지 중권역 내 좋은 물 비율을 40% 이상 달성기 위해 총 2,941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팔당댐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은 2012년까지 생태계 복원, 한강수계 상류 댐 군을 연계한 수량·수질 관리 등에 총 664억원이 투자된다.

수돗물시민회의

스타벅스와 함께 태안 지하수 모니터링



수돗물시민회의는 지난 3월 13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서울 본사에서

태안 반도 유류오염지역의 지하수 안전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수돗물시민회의와 스타벅스가 지난해부터 함께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 맑은 물 지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은 비산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수돗물시민회의와 스타벅스는 태안 지역 지하수의 안전 모니터링을 위해 맡까지 진행하며, 스타벅스 수도관 매장 내에 모금함을 설치해 고객들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농촌공사

물문제 해결모색 심포지엄 개최



'제16회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

이 지난 3월 20~21일 한국농촌공사와 한국관계 배수위원회 주최로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농촌공사와 관계배수위원회, 관련업계 및 학계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물관리'란 주제로 물관리와 친환경 에너지 사업, 유지관리 효율화 및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진수 충북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농촌지역에서 농업용수 이외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농업용수를 지역용수 개념으로 확대, 지역주민에게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북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부 종합평가서 우수센터 선정



경북환경기술개발센터가 환경부의 2007년도 사업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됐다.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 단위로 환경 관련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단체, 행정기관 등이 협력체를 구성해 전국에 18개의 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환경부는 매년 이들 단체의 사업실적과 운영실태를 평가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종합평가는 지역특화사업, 연구사업, 기업지원사업, 환경교육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경북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전 분야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또 우수센터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

아리수, 청와대 입성



제17대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첫 국무회의에서 서울의 수도물 아리수를 마셨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3월 2일 아리수 350㎖ 38박스를 청와대에 공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유세 중에도 수도물의 수질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수에 뒤지지 않는다

는 점을 강조하며, 정수센터에서 수도물을 페트병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본관 및 당선인 사무실, 국가경쟁력 특위, 대회의실 등에서도 아리수를 꾸준히 음용(350㎖ 1,374박스)하였으며, 국무총리실, 법무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 주요기관을 포함한 70여 개 기관에는 1년여 전부터 회의용으로 아리수가 제공된 바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바닥분수 가동



서울특별시는 3월 17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광장 바닥분수를 가동하고 이날부터 20일까지 광장 전체에 새 잔디를 심었다. 시는 지난겨울 스케이트장 운영과 얼음조각 전시행사 등으로 인해 잔디 대부분이 죽거나 훼손돼 광장 6,449㎡의 잔디를 전면 교체기로 하고 가양양묘장에서 자체 생산한 건강한 잔디를 심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겨울철 가동이 중단됐던 바닥분수도 이날부터 가동을 재개,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물을 뿜게 된다. 시는 바닥분수물의 수질 관리를 위해 매달 한 차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물탱크 청소와 물 교체 작업도 시행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생태숲으로 탈바꿈



광주광역시의 환경기초시설이 명품 생태숲으로 거듭난다. 시는 쾌적한 삶을 위해 필요하지만 약취 등의 문제로 기피시설로 인식돼 온 환경기초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생태와 여가문화가 어우러지는 명품 생태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구단(T/F팀)을 구성했다.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활동하는 연구단은 환경교

육홍보, 생태공원, 하수·위생, 자원순환 등 4개 분야에 지역대학 교수와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17명이 참여해 상무지구 주변의 제1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음식물사료화시설, 상무소각장 등에 대한 생태숲 조성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에코 폴리스 울산' 사업 순항



울산광역시의 현안사업인 '에코 폴리스(Eco-Polis)' 시책이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다. 에코 폴리스 울산계획(1단계)은 총 사업비 1조 8,961억원을 들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기, 수질 등 10개 분야 110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은 지난해 말 현재 5,600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완료 49개 사업(울산대공원, 선암수변공원 등), 정상 추진 61개 사업(태화강 생태공원 조성, 천연가스 보급사업 등) 등이다. 시는 2010년~2014년을 목표로 하고 에너지·환경산업 육성, 생태도시 경쟁가치 제고, 국제환경역량 강화, 자연 생태계 보전·복원 및 녹색공간 창출, 민관 환경 거버넌스 체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코폴리스 울산계획(2단계)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환경닥터제 효과 높아



경기도의 환경닥터제가 환경관계법규 위반율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환경닥터제는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환경관리에 문제가 있는 업체나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그리고 환경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3년부터 산업단지 내 총 1,110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기술을 지원, 친환경기업으로 유도해 환경관계법규 위반율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있다. 올해에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 가운데 지난해 환경관련 문제가 있던 사업장과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환경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 등 총 241개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전략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를 지역 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한 물산업 육성

전략이 확정됐다. 제주 환경자연연구원 제주지역 물산업을 지하수 보전 및 이용의 균형원칙 틀에서 추진하고, 먹는 샘물 및 기능성 음료사업은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에서만 추진하는 등의 물산업 육성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2017년까지 연간 1조원을 매출 목표로 ▲물산업 클러스터 2개소 조성 ▲제주지하수 글로벌 브랜드화 구축 ▲개발공사 물산업의 고도화 ▲제주형 워터파크 조성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하수 보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재 259개의 관측망을 2012년까지 총 455개로 늘려 지하수 안전망을 구축하고, 빗물과 용천수 등 대체수자원 개발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수원시

전국 최초 물 캠페인 참여 선언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3월 18일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명식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ICLEI(지자체국제환경협회)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물 캠페인(The Water Campaign, ICLEI)에 참여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날 김용서 수원시장은 물 캠페인 참여 선언문을 통해 “안전한 물 공급과 물 환경을 조성해 환경적으로 풍요로운 도시, 세계적인 물의 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ICLEI 물 캠페인에 참여

를 선언함에 따라 국제물관리규약에 따른 수자원의 현황 파악 및 직간접적인 영향 예측, 효율적 수자원 확보·소비 및 수질개선 목표설정, 수원시 물계획의 개발 및 공식승인, 정책의 수단과 실행,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등 5단계 마일스톤에 따라 물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인공폭포 가동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인공폭포가 3월 1일부터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

시는 동절기 동파방지 등을 이유로 가동을 멈추었던 인공폭포를 봄철을 맞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동하고 있다. 높이가 91.7m인 화도하수처리장 인공폭포는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해 만들었으며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하면서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은 물론 지역관광자원으로 한몫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도하수처리장은 단순히 하수처리만의 기능이 아닌, 주민들의 휴식과 학습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친화적 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에는 S자형 물놀이 시설 및 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284m의 관광코스가 조성돼 있다.

양평군

‘행복한 도시’ 대상 수상



경기도 양평군이 3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HAPPY KOREA 2008

행복한 도시 대상’에서 ‘친환경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한겨레이코노미21이 주최하고 한국미디어포스트가 주관하며 문화관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복지TV가 후원한 것으로 양평군은 이번 수상으로 전국 유일의 친환경농업 특구

지역으로서 청정한 생태도시이자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친환경도시 부문에서 양평군이 대상을 수상 한 것은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상수원으로 각종 중첩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맑은 물, 푸른 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주민과 혼연 일체되어 땅을 살리고 물을 살리는 ‘맑은 물 사랑’과 ‘친환경농업’을 균형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춘천시

의암호에 연꽃 식재



강원도 춘천시는 의암호 녹조 발생을 생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연꽃을 대규모로 식재했다. 시는 4월부터 한 달

간 8억 8,000여 만원을 들여 의암호 15개소 16만 278㎡에 자생백련, 홍련, 수련 등 연꽃 5만 8,400축을 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꽃 식재지역은 서면지역 낚시터 4곳, 삼천동 수변공원, 하중도~붕어섬 중간, 신사우동 선박시험장 주변 등이다. 특히 연꽃을 추가로 심을 경우를 대비해 하중도 내에 연꽃 재배단지를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북한강, 소양강 상류의 흙탕물 유입과 부영양화 등으로 인해 점점 혼탁해지고 있는 의암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의암호수는 연잎과 연꽃이 장관을 이루 청정호반의 명소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태백시

1사1하천 정화운동 전개

강원도 태백시가 관내 주요하천을 더욱 청결하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 1사1하천 정화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3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25개 기관·단체·기업체·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사1하천 정화운동 추진실적과 금년도 1사1하천 정화운동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등을 토의하고 정화운동 참여기관·단체별 담당구역 및 협의지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관내 도심지를 흐르는 주요하천들이 1급수의 맑은 수질을 유지하면서 항상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양구군

파로호 수변지구 생태숲 테마공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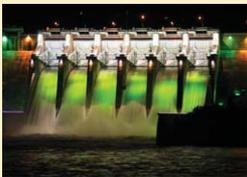


강원도 양구군의 파로호 수변지구 생태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최

종 사업대상 지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와 습지생태공원, 도·농종합정보관, 산책로, 전망대 등 테마·체험공원 기반 시설 설치에 총 사업비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위락시설, 판매시설, 음식점, 펜션, 야영장, 숙박시설 등 소득창출이 가능한 시설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서 내년 1월 사업을 착수해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농촌 테마공원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동군

대청호 상류 맑은 물 지키기에 731억원



충청지역민들의 상수원인 대청호 상류지역에 위치한 충청북도 영동군은 2010년까지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모두 73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27개소, 하수관거 115.6km를 신설 또는 개량하고 있는 군은 이에 따라 올해 196억원을 들여 황간면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매곡면 노천리 등 8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시공 중이다. 군은 특히 정보기술(IT)과 환경기술(ET)이 접목된 효율적인 지역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앞으로 하천, 지하수, 토양 등 오염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개념의 하수도 운영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하수도 보급률이 2006년 39.7%에서 2010년 70.7%까지 높아져 상수원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군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충청북도 보은군은 보은읍 금굴리 하수종말처리장에 40kWh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을 설치키로 했다. 군은 올해 모두 3억 8,000여 만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 내 300㎡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3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 뒤 5월께 착공, 연말까지 준공할 방침이다. 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될 경우 현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일반 전기와 함께 연결해 송풍기동에 주야간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곳은 하루 평균 일조량이 7시간 이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시설을 이용한 전기 생산량의 효율성이 최소 60%~최대 200%까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양군

4월부터 상수도업무 민간위탁



충청북도 단양군의 상수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단양군의회를 통

과했다. 군의회는 제1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군이 재상정한 이 동의안을 2시간여 동안의 격론 끝에 찬성 5, 반대 2로 통과시켰다. 군이 직접 운영해 왔던 상수도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20년간 위탁하는 내용이 동의안의 주요 골자였다. 군은 이날 군의회 제안설명을 통해 “상수도 수공 위탁을 통해 기술

진단 비용 등 연간 68억원의 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수도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특히 시설개선을 통한 수질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상수도 요금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군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원가 줄여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거제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돗물 공동 생산



경상남도 거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거제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

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에 들어가면서 거제수도서비스센터를 개소했다. 시와 수공이 지난해 11월 협약을 맺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이 협약에서 시는 상수도 정책과 계획, 신규급수 확장사업, 수도요금 수납, 위탁사업 관리 등을 책임지게 된다. 수공은 향후 20년간 블록시스템 구축과 노후관 개량, 현대화 등으로 누수율을 낮추어 안정된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손을 잡은 것은 21만 거제시민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한다는 의미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전국 상하수도인이면
누구나 보는 협회지에 회원 여러분의
최근 소식을 담아보세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세요?

보도자료(사진자료 포함)를 아래의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회원님들의 소식을 소중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

홍보팀 신재택 팀장, 공석진 대리
Email : myakong@kwwa.or.kr
Tel : 02-3156-7733